

# ‘나의 생각’을 가지게 되기까지

원서연  
인턴기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2016년의 겨울을 기억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위 “국정농단” 탄핵 사건. 여느 젊은이들과 같이 “헬조선”에 살아가야 하는 것과, 그러한 “헬조선”을 만든 기득권층에 불만을 품고 있던 나는 당연히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가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하야하라!”를 외쳤다. 그동안 “헬조선”임을 입증하는 여러 뉴스기사들과 기득권층의 비리들을 고발하는 영화들을 보며 품어왔던 불만과 분노가 정당하게 터뜨려지는 것 같은 순간이었다. 나는 주저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나갔고,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정의라고 생각했다. 학창시절 역사시간에 강의를 들으며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으며 독립운동 투쟁을 했던 청년 열사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나라를 위해 청춘과 몸을 불태울 수 있다면 좋을 텐데’라고 마음 깊숙이 생각해왔던 나는 이때가 바로 행동해야 할 순간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고, 나는 쾌재를 불렀다. 그것이 바로 기도응답이라 생각한 나는 그 날 눈물까지 흘렸다. 제대로 된 정의가 실현되는 것만 같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얼마 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그 뒤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라 소망했던 나의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다.

여러 복잡한 정치 이슈들을 마주하게 될 때면 내 마음 안에는 이러한 질문들이 떠올랐다.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진짜 정의란 무엇일까?,”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

은 혼자서 대답을 찾아가기에 너무나 벅찼고, 어디서부터 찾아보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얻는 이들의 의견이 주로 나의 생각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늘 내 마음 안에는 불안함이 있었다. ‘이것이 정말 맞을까? 정말 정의인가? 올바른 정치관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은 대학원에서 법을 공부할수록 더 깊어졌다. 2017년 겨울에는 동성애에 대한 이슈들과 여러 번 부딪히게 되었고, 그것이 왜 옳지 않은가에 대한 나의 확실한 답에 대한 이유를 찾기 어려워 고민이 늘어갔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심해졌던 어느 날 밤, 나는 어떤 강의를 듣게 되었다. 막혀 있던 부분이 뿔뿔이 뚫리는 것 같은 느낌에 거의 밤이 새도록 강의를 들었던 것 같다. 강의를 통해서 주로 배운 것은 “사상(ideology)”이었다. 세계의 사상사의 흐름과 그 기류 속에서 동성애와 젠더 운동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 오고 있는지를 배웠다. 그것은 빌헬름 라이히가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드 심리학을 접목하여 만든 네오막시즘(Neo-Marxism)이라는 사상이었다. 빌헬름 라이히는 ‘성정치, 성혁명’을 주장하며 전통적인 가정, 학교, 종교에 의해 인간의 성적 욕망은 억압받고 있으며, 그 성적 욕망을 해방시켰을 때 인간의 진정한 해방이 온다고 하였다. 네오막시즘은 가정을 인간의 성적 욕망을 억압하는 제도라고 여기기 때문에, 특별히 동성애를 앞세워 가정을 해체하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 전략은 프랑스



에서 먼저 성공하였고, 유럽 전역과 영국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 그 세력을 넓혀 오고 있다. “인간의 성적 욕망의 해방과 전통적 가치의 해체”가 기본 아젠다로 설정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보니, 미국에서 동성혼 이슈 다음으로 다자연애, 근친상간, 수간까지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나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성혁명”을 통한 진정한 “인간 해방”을 위하여서는 성관계를 맺는 대상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성혼 법제화가 왜 잘못되었지?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게 된 후부터 그 이슈를 보는 나의 관점과 생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관과 종교관이 건전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도덕적 신념에 근거하여 “동성혼 법제화”와 그를 뒷받침한 사상은 옳지 않고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실제로 미국에서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뒤에 그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문제들, 동성애자 커플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들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케네디 대법판에게 쓴 편지들을 접하면서, 우리나라가 받아들이려 하는 ‘동성혼 법제화’와 젠더 운동의 흐름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인지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의로운 것 같다고 생각했던 현 정권에서 무책임하고 위험한 ‘동성혼 법제화’를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최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동성혼 법제화’의 초석이 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무차별적으로 통과시키는 과정을 보며, 탄핵 시위 때

막연하게 품었던 현 정권에 대한 소망과 신뢰는 무너져 갔다. 그것을 시작으로, 과연 ‘정의(justice)’에 대한 나의 생각과 기대가 정말 옳았던 것일까 고민하게 되었다.

치열한 경쟁시대에 나를 포함한 젊은 청년들에게 ‘동성혼 법제화’ 같은 사회, 경제, 정치 이슈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는 이제 잔소리처럼 들린다. 대부분 알기에 너무 복잡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릴 뿐만 아니라 나의 삶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결국 우리 삶에 직접적 영향으로 돌아오고, 그 때에는 우리의 무관심이 그 대가에 대한 변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이 나의 고민의 시작이었다.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이 나의 생각을 변하게 한 질문인 것 같다. “그것의 정의(definition)가 무엇인가?,”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fact인가 opinion인가?,” 즉 ‘내 생각 만들기’이다.

최근 좋아하는 만화 작가인 윤00씨의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극우’라고 이름 붙이는 기자들에게 왜 자신이 ‘극우’냐고 전화해서 물어보았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에 대해 자신의 생각으로 답변하는 기자들은 없었고, 돌아온 답변은 “‘극우’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였다고 한다. 서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했을 뿐만 아니라, ‘극우’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 내리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윤00씨는 ‘극우’란 “폭력에 기반한



극단주의, 전체주의, 민족주의, 즉 파시즘”이라고 정의하며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한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러한 무시무시한 단어를 자신의 이름 앞에 붙여 버리는 것에 대해 그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것이 요즘 우리 사회의 문화적인 특징 중 하나인 것 같다. 어떠한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 자신의 명확한 생각과 근거가 있기보다는, 주변의 분위기나 언론, 유명인들의 생각을 수용한다. 그리고 그 생각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를 때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아님 말고’라는 식으로 발생한 일들에 피해자는 자꾸만 생겨나는데 가해자는 없다. 탄핵 집회에 나갔을 때, 나의 마음 상태가 그랬던 것 같다. 그 전부터 나는 사회를 향한 분노가 많았다. 대기업과 기득권들은 욕심이 너무 많고 노동자나 서민들의 고통에는 관심도 없는 나쁜 집단이라고 생각했다. 대학생의 한 달 생활비가 평균 100만원이 넘어 간다는 기사에 작은 탁자에서 밥과 김치로 끼니를 때우는 대학생의 사진을 보았을 때는 분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다. ‘동성혼 법제화’ 이슈에 대한 ‘내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동안 정의롭다 생각했던 일들에 의구심을 가지게 된 지금은 이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된다. 그 분노는 정말 나의 생각과 감정이었을까? 대기업과 기득권들은 정말 나쁘기만 할까? 대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서 의식주를 부족하지 않게 당연히 공급받아야 한다는 권리요구 위주의 생각은 정말 옳았을까? 정말 여기는 ‘헬조선’ 인가? 탄핵의 모든 과정이 정말 적법절차를 밟았으며 사유는 정

당 했을까?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일련의 사고과정과 감정을 셋팅했던 것은 아닐까? 이 과정들을 밟으며 깨달은 것은 나는 나의 생각과 행동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책임을 전가하던 올바로 지든, 그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렇다면 청년 여러분!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질 준비가 되었는가?

